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8	07. 05	07. 12
대표 기도	유미경 집사	정용현 집사	한명희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황희순 집사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민24~36장, 히1~5장)
2. 예배중계 - 유튜브 검색 창에서 “브레멘한민교회” 검색해주세요.
3. 기도 - 흠어져 있는 한민 식구들의 영, 육간 강건을 위하여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5. 한국 방문-노지민 형제(22일 출발)
6.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첫들	김문희, Andreas Mäder 장녀 - Hanna Mäder(26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04장..... 다같이
- 기 도 Gebet ..... 김효중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대하 7 : 11 - 22(구p665)..... 이상호 목사  
(2.Chronik 7:11-22)
- 설 교 Predigt .....분명한 결단!.....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09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유미경 집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깨닫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온갖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느끼며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희(喜)와 낙(樂)이 인생의 목적 같지만, 이것마저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데 일조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굶주리기도 한 반면 자기들의 조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고통의 삶과 이적을 체험하는 삶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적절히 희로애락을 주셔서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희로애락에 빠져 이것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소진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과 욕구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는 자만이 그러한 흐름에서 역류할 수 있지 적당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 없이 이 세상 풍속을 역류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만이 결과와 현상에 상관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 정요석 목사  
(세움교회 담임)

\* 최선을 계획하신 주님의 지혜와 우리의 최선을 이루실 그분의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 A. W. Tozzer -